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반대 확산

시민단체 “뻔뻔한 탈법, 밀어붙이지 말라”

민노당 강력 반발 속 일부 의원들도 반대

광주시의회가 한 차례 포기했다가 재추진하려는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민단체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유급보좌관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요구 철회 뜻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시민과 소통 과정 없이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예산 편성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유급보좌관제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정 위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논의되고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은 윤봉근 의장과 강운태 시장 간의 예산 주고받기 식 밀실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전문성 강화와 시정 견제·감시,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을 위해 전문보좌관제 도입은 필수지만

현재 시의회가 추진하는 방법은 위법 아니더라도 관행이기 때문에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민호 민노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유급보좌관 도입은 의원 개인 비서가 아닌 전문성 강화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유급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보좌관 풀(Pool) 제도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시의회가 뻔뻔하게 탈법을 밀어붙이지 말고, 지방자치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며 ‘절차’를 문제 삼는 등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재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유급보좌관제 재추진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서울시의회도 몇 년째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파가 있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만큼 공개토론 등을 거치는 등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심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 6억4000만원의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0월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을 요구했다가 집행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침몰 해군 고속정 인양
지난달 10일 제주항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150t급 해군 고속정 295호정이 침몰 26일 만인 5일 제주시 용담동 앞 바다에서 찌그러진 모습으로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레저세 확대’ 수도권 지자체에만 유리 재정자립도 낮은 광주·전남 대책 필요

세수 증대 절반이 서울·경기 집중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레저세 확대’법안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세수가 광주·전남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경마(競馬)·경륜(競輪)·경정(競艇)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스포츠 토도와 카지노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남도는 연간 69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과세하는 게 같자, 전남도 등은 그동안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레저세 확대를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레저세 과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편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법안 개정으로 스포츠 토도의 경우 총매출 1조 7590억원(2009년 기준) 중 2462억원의 지방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48.61%(1197억)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556억, 경기도 524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광주·전남은 각 2.9%, 2.8% 수준에 불과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년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세계 유명도시 단체장 잇단 참가 의사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히로시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등 세계 유명도시의 단체장들이 2011년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에 참가의사를 밝혀왔다.

광주시는 5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개인 뉴섬(Gavin Newsome) 샌프란시스코시 시장이 공동 서명한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초청 서

한문을 회원도시에 발송한 결과 현재까지 21개 도시가 참가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 중에는 카불(아프가니스탄), 케이프타운(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톡홀름(스웨덴), 나이로비(케냐),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등 해당 국가의 수도도 포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선 5기 들어 서먹해진 光州·全南

강운태·박준영 오늘 첫 회동

민선 5기 출범 이후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첫 공식 회동이 될 6일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이들 광역단체장이 어떠한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양 단체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일사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이처럼 단 둘이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의 지역여론이 정면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이 열리게 돼 이들 단체장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리는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들 두 단체장은 30분간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일정 문제로 불참한다.

일단 광주시는 강 시장과 박 지사가 만남을 가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원칙적인 반

빛의만평

- 김중두

타결인지 타격인지 헷갈린다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최신형 KDVD-2300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직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엇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되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 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 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이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매문의 02-522-4355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켈런트 시계가 야심 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까지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 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맛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가 되었으며 몸매가 모델을 뺀다는 기가에다 흔들며 떨어지지 않는 몸매를 자랑하는 머릿결 보드랍고 밀랑거리는 피부 감각이 있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 키는 1m50이 되며 색채가 아름다운 생선인진 햇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필리 예방도 돼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타가 난다.

주분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기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역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